

광주시, 통합 맞춰 '라이즈사업 초광역' 대응

위원회 열어 17개 대학 첫 평가...4개 등급 차별 지원 광주·전남 '초광역분과위' 구성...현안·협력과제 발굴

광주시가 '광주 라이즈(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1차년도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교육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광주시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광주라이즈(RISE)위원회'를 열어 '2025년(1차년도) 광주 라이즈(RISE) 자체평가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광주 라이즈(RISE) 위

원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1차년도) 광주 라이즈(RISE) 자체평가 결과(안) ▲광주·전남 통합 대비 초광역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광주광역시 RISE 사업비 집행기준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가칭)지역형 계약학과 추진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5년 광주 라이즈(RISE) 자체평가 결과(안)'에 따라 광주 라이즈(RISE) 사업을 수행한 17개 대학에 S(3곳), A(6곳), B(5곳), C(3곳)

등 4개 등급을 각각 부여했다.

등급은 광주 라이즈(RISE)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자체평가 점수에 따라 결정했으며,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대학은 9월 이후 특전(인센티브) 규정을 부여받게 된다. 특전(인센티브) 규모는 교육부의 시도 연차점진 결과 이후 확정되는 국비 지원액에 연계해 추후 결정된다.

위원회는 또 광주·전남 통합에 대비해 '초광역 분과위원회'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 초광역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와 전남이 공동 운영한다.

초광역 분과위는 광주·전남이 합의해 각 6명씩 추천, 총 12명 규모로 구성한다. 초광역 분과위는 통합특별시 단일 위원회 구성 전까지 기존

시도별 라이즈(RISE) 체계를 유지하되, 통합 현안을 사전 검토·조정하고 초광역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라이즈(RISE) 사업비 집행기준 개정(안)'을 의결, 사업비 집행기준에 교육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칭 지역형 계약학과 추진계획(안)'의 추진 방향과 세부 사항 등도 논의했다. 지역형 계약학과는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해 산·학·연 협력형 신규 과제들을 추진 중이다.

/김도기 기자

광주비엔날레, 첫 예술감독 공개 공모 30년 만에 추천제서 전환...8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수

광주비엔날레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예술감독 공개 공모제를 도입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17회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를 총괄할 예술감독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창설 이후 30년간 유지해온 추천제 중심 선임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 공모제로 전환하는 첫 사례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소수의 추천위원이 추천한 후보군을 중심으로 선임돼 왔다. 재단은 창설 30주년을 맞아 광주정신과 비엔날레의 역사적 자산을 계승하면서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예술감독 선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개 공모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독 개인의 명성보다 전시

의 비전과 내용, 기획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국적과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이 국내외 전시기획 전문가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예술감독 체제로도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 간 협업 형태의 지원도 가능하다.

재단은 민주·평화·인권 의 광주정신을 예술적으로 구현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참신한 기획안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대 미술의 흐름을 선도할 역량 있는 국내외 전시기획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17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공모 접수는 오는 8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다.

/조선주 기자

광주 패밀리랜드 새 운영사 공모 유찰...재공모

광주의 대표놀이시설인 '패밀리랜드'를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1곳만 참여해 자동 유찰됐다.

1일 광주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새 운영사를 찾기 위해 공모를 추진했지만 1곳만 참여했다.

경쟁입찰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해야 공모를 진행할 수 있지만 1곳만 입찰해 유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우치공원사무소는 재공모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사를 선정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특례조항에는 경쟁입찰이 안 될 경우 참여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26년 제3차 광주라이즈(RISE)위원회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광주라이즈(RISE)위원회'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해 '2025년(1차년도) 광주 라이즈(RISE) 자체평가 결과(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도, 日순방서 관광·수출·교류 협력망 확대 농수산물품 일본 시장 판로개척

전남도가 일본 오사카·도쿄 공식 순방을 통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와 관광·MICE(마이스) 산업 벤치마킹, 재일 향우사회 협력 강화, 농수산물품 수출 판로 개척 등 분야별 협력 기반을 넓혔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지난달 30일까지 3박4일간 일본을 방문해 오사카부지사 면담, 오사카 유메시마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청취, 동경 호남향우회 간담회, 일본 유통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지사는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지사와 만나 국제행사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양 지역 간 실질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오사카부는 2019년 G20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운영, 안전관리, 국제협력 체계 구축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국제행사 유치와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관광·문화·철단산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간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오사카부 사키시마 청사도 방문해 유메시마 복합리조트(IR) 개발계획과 국제관광산업 육성 전략을 살폈다.

/김 호 기자

'광주 청년 일경험 제공' 중소기업장 인건비 90% 지원

오는 17일까지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장 모집

광주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제20기 드림터(사업장)를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지역 사업장에 인턴 사원 등으로 취직해 실제 직무를 경험하며 역량을 키우는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다.

하반기 근무 기간은 8월부터 12월 까지 최대 5개월이며 광주시는 사업장에 청년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또 프로그램 종료 후 청년을 1년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중소기업)에는 채용 청년 1명당 최대 240만원의 연계 채용 특전(인센티브)을 추가로 지원한다.

하반기 드림터 모집 대상은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그린산업단지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도 인증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업장은 보조 업무가 아닌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실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남도한바퀴 여름 여행, 14개 코스 출시

전남도가 여름철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여름 여행코스를 출시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한바퀴는 버스를 타고 코스마다 3~5개 관광 명소와 축제를 한 번에 여행하는 대표 관광상품이다.

이달부터 8월까지 운행하는 이번 여행코스는 전남의 여름 정취를 만끽할 14개 코스로 채워졌다.

주요 코스는 선암사·광양 불교기거리·요트체험(순천·광양), 백

양사·영광 굴비거리·백수해안도로·철산타워(장성·영광), 국립해양유물전시관·북항 회타운·목포 해상케이블카·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목포)이다.

또 화순 직벽·관광제법·국수거리·죽녹원·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화순·담양), 흥국사·교동 수산시장·오동도·아쿠아플라넷(여수), 분청박물관·녹동항 회타운·금당팔경 유람선 여행(고흥) 등이 다.

/김 호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광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